

소방공무원의 주관성에 관한 연구

김지희¹, 이재영^{2*}, 김동옥³, 현혜진⁴, 변도화¹, 노상균⁵, 이정현⁶

¹강원대학교 응급구조학과, ²관동대학교 광고홍보학과, ³우송대학교 응급구조학과, ⁴강원대학교 간호학과,

⁵선문대학교 응급구조학과, ⁶호원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

Study on Subjectivity of Fire Fighter

Jee-Hee Kim¹, Jei-Young Lee², Dong-Ok Kim³, Hye-Jin Hyun⁴, Do-Hwa Byeon¹,

Sang-Gyun Rho⁵ and Jung-Hyun Lee⁶

¹Department of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Kangwon National University

²Department of Public Relation, Kwandong University

³Department of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Woosong University

⁴Department of Nursing, Kangwon National University

⁵Department of Emergency Medical Service, Sunmoon University

⁶Department of Aircraft Service Management, Howon University

요약 본 논문에서는 해당 실무자들이 본 소방공무원들의 주관성을 진단하고, 기능적인 측면에서 세부적인 유형적 효과요인들을 확인하여 향후 개선과 방향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는 소방공무원들, 즉 해당 실무자들의 주관적 성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Q방법론을 이용하였다. 분석된 결과, 총 4가지의 유형, 즉, 제 1유형(N=26) : 직업형(Occupational Type), 제 2유형(N=11) : 경험형(Experience Type), 제 3유형(N=1) : 인간형(Human Type), 제 4유형(N=2) : 정의형(Justice Type) 등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QUANL 프로그램을 실시해 본 결과, 전체변량의 약 50(0.4972)%를 보여줌으로써 높은 설명력을 보여주었다. 결과적으로, 앞으로 계량적인 실증적 연구와 소비자들의 의견을 종합한 비교와 대안책이 추가된다면, 소방공무원들의 주관성에 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결과가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러한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는 후속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지기를 기대한다.

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by practical method in a subjectivity study accessible in-depth, in sloughing off old habit of functional quantity analysis about a subjectivity of fire-public servant in nation. The perception pattern come out in this study were divided into four types in Q-methodology. The result is as follows ; it is divided into 1[(N=26) : Occupational Type], 2[(N=11) : Experience Type], 3[(N=1) : Human Type], 4[(N=2) : Justice Type]. There are four types of fire fighter images. In conclusion, this study is to ascertain acceptance behavior about Reception Type on a subjectivity of fire-public servant in nation ; to offer a developmental suggestion about it.

Key Words : Fire fighter, Q-Methodology, Subjectivity study

1. 서론

화재를 예방하고 불이 났을 때 불을 꺼주며, 소방시설을 관리하고 긴급한 사태에 대비해 119구조 운영과 관리를 주로 하는 소방공무원(消防公務員)은 국민의 생명, 신

체,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직무로 하고 있다[1]. 특히, 이러한 소방관들은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교신저자 : 이재영(jylee1231@empas.com)

접수일 11년 08월 26일

수정일 11년 09월 22일

게재확정일 11년 10월 06일

하는 공무원이다. 현대에 와서는 국가의 재난관리를 맡는 FEMA(미국)의 청장은 소방관 출신이며, 일본의 경우도 국가 재난관리는 총리 직할 소방청에서 맡아오고 있어 총체적 재난관리의 역할 역시 소방관이 맡고 있다. 독일의 경우 환경분야도 소방관이 관리한다. 역사적 기록으로는 최초의 소방대는 고대 이집트에서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불을 끄는 일에 적극적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직업이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여부는 알 수 없다. 고대 로마에서 소방관의 일을 하는 노예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현대에는 소방 및 구조를 하는 소방관만 남았으며, 이에 따라, 과거와 달리 돈을 받으며, 누구나 전화로 긴급 상황을 알릴 수 있고, 또한 그 전화를 받을 봉사자들이 있다. 영국에는 아직도 남아있는 서비스가 있는데, 소방관의 가정 및 직장 모두 호출기가 설치되어 있는 서비스이다. 해방 이후의 소방관들은 단순히 화재 진압 위주의 임무를 수행했으나 현재에 이르러서는 인명구조와 응급 치료도 병행한다[2].

소방의 개념은 역사적 변천과정이나 현행 법규의 목적에서 그 정의를 찾아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진압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전적 개념으로는 ‘불이 나지 않도록 미리 막고 불이 났을 때 불을 끄는 일’이라고 함축되어 있다. 소방기본법 제1장 제1조에 의하면, 소방행정은 그 범위와 대상의 영역은 한정되어 있지만, 각종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이를 구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제반활동을 구체적으로 형성하는 국가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3].

최근, 소방공무원에 대한 연구는 주로 직무만족도, 안전관리 및 복지 분야 등에 대하여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4-9] 지금까지 다양한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안전, 스트레스, 채용제도, 처우 및 개선방안 등에 관한 선행적 논의가 있어 왔으나, 소방공무원 당사자들의 개인 주관성을 확인하고, 이를 분석, 평가하는 논의가 거의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소방공무원 이미지에 관하여 실증적이고 심층적 Q 분석을 통해 다각적인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또한 Q방법론을 선택한 이유는 연구참여자의 주관성과 본질적인 의미에 보다 심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질적연구방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소방공무원 이미지에 관하여 인식되는 일선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들의 주관적 수용 인식은 어떠한 지에 대해서 Q방법론적 분석으로 진단하고, 향후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소방공무원에 관한 이미지를 분석함으로써 변화하는 국내 소방환경의 대안적 모델과 전략을 수립하는 데 일조하는 데 있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제기된 사항들의 해답을 얻기 위하여 주관성연구 분석방법을 활용하며, 이에 따른 연구 문제는 아래와 같다.

연구문제 1 : 국내 소방공무원 이미지에 관한 수용인식 유형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 이들 각 유형들 간의 동질적 특성과 그 함의는 무엇인가?

2.2 연구설계

국내 소방공무원 이미지에 대한 문헌분석은 객관적인 가치 분석이 가능하여, 앞으로 국내 소방공무원 이미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국내 소방공무원 이미지에 대한 평가는 객관적인 가치규명뿐만 아니라, 국내 소방공무원에 대한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유도할 수 있다.

추가로 본 연구에서는 소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Q심층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논문주제들의 관점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연구 중점 주제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질적 연구의 한 분야로서 Q 심층조사 분석은 Grand Tour Technique 방식을 채용해 실시하였으며, 공통의 분야와 개별 분야로 나누어 연구주제들이 제기되었다.

인터뷰의 과정은 리쿠르팅에서부터 코딩 분석까지 설계되었으며, 실제 리쿠르팅은 본 연구팀에서 대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뷰, 분석의 두 가지 일을 맡았다.

2.3 연구방법

본 논문에서는 R방법론에서 도출된 다양한 의견과 각각의 유형을 구조화하고 유형별 특성을 파악, 기술하고 설명하는데 좀 더 발견적이고 가설생성적인 Q방법론 [10-13] 분석결과를 토대로 좀 더 다각적인 평가와 전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국내 소방공무원 이미지에 관한 연구에 대해서는 기존의 계량적 방법론(R방법론)으로 객관적 통계분석이 주로 이용되어 왔으나, Q방법론[14,15]적 분석논문은 종사자간, 즉 관련된 응답자들의 자아구조(schema) 속에 있는 요인들까지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찰력 있는 분석이 도출될 수 있다고 본다. 즉, 이 연구는 기존의 이론에서 연역적인 가설을 도출하는 종래의 연구방법과는 달리,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갖게 되는 주관적 분석에 의하여 새로운 가설을 발견(hypothesis abduction)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16]. 연

구자는 국내 소방공무원 이미지에 관한 사항을 심도 있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법으로는 어느 정도 한 계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Q방법론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분석 작업은 진술문 형태의 카드를 분류하는 방법으로 행해졌다. 이 진술문 작성을 위하여 연구자는 종사자들의 인터뷰를 통하여 Q모집단(concourse)을 구성하고, 이를 통하여 진술문(Q-statement)을 작성한 후, P샘플을 선정, 분류작업(sorting) 과정을 거쳐 얻게 되는 Q-sort를 PC QUANL 프로그램을 이용, Q요인분석(Q-factor analysis)을 통해 분석하였다.

2.3.1 연구대상의 선정

국내 소방공무원과 관련된 주관성을 심층적으로 도출해내기 위해 관련 전문가 소방공무원 40명을 연구참여자(연구대상)로 선정하여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전문가들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한 근거는 국내 소방공무원의 이미지 연구에 대해 보다 논리적이고 심층적인 의견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2.3.2 Q표본(Q-sample)과 P표본(P-samp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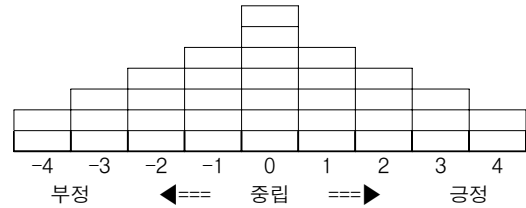
이 연구를 위한 Q표본은 국내 소방공무원 이미지에 관한 수용태도 유형에 관한 가치체제로 구성된 약 50여 개의 Q-population(concourse)을 추출하였다. 또한 Q-population에 포함된 진술문 중 주제에 관한 대표성이 가장 크다고 여겨지는 진술문을 임의로 선택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최종적으로 35개의 진술문 표본을 선정하였다. 여기에서 선택된 35개의 진술문은 전체적으로 모든 의견들을 포괄하고, 긍정, 중립, 부정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표 1].

Q방법론은 개인 간의 차이(inter-individual differences)가 아니라 개인 내의 중요성의 차이(intra-individual difference in significance)를 다루는 것이므로 P샘플(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은 40명의 P표본(샘플)으로 선정하였음)의 수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 또한 Q연구의 목적은 표본의 특성으로부터 모집단의 특성을 추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P표본의 선정도 확률적 표집방법을 따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기준에 의거하여 성별, 연령, 직업 등 인구학적 특성을 적절히 고려하는 R방법과 달리, 본 연구와 관련하여 사전 연락을 통해 조사 작업에 동의를 구한 P표본(응답자: 소방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최종 40명을 P샘플로 선정하였으며, 회의실에 모여서 조사되었다.

2.3.3 Q분류작업(Q-sorting)과 자료의 처리

Q표본과 P표본의 선정이 끝나게 되면 P표본으로 선정

된 각 응답자(Q-sorter)에게 일정한 방법으로 Q샘플을 분류시키는데 이를 Q분류작업(Q-sorting)이라 부른다.



[그림 1] 각 진술문의 긍부정의견 점수 분포
[Fig. 1] Score distribution on positive/negative opinion of each statements

[표 1] 분포별 점수 및 진술문 수
[Table 1] Scores by distribution and number of statements

분포	-4	-3	-2	-1	0	1	2	3	4
점수	1	2	3	4	5	6	7	8	9
진술문 수	2	3	4	5	7	5	4	3	2

이러한 Q분류작업은 개인이 복잡한 주제나 이슈 또는 상황에 관한 자신의 마음의 태도를 스스로 모형화하는 것으로서 각 응답자는 진술문을 읽은 후, 그것들을 일정한 분포 속에 강제적으로 분류하였다. 그림 1에서 보듯이, 이 연구에서의 Q분류의 절차는 Q표본으로 선정된 각각의 진술문이 적힌 카드를 응답자가 읽은 후 긍정(+), 중립(0), 부정(-)으로 크게 3개의 그룹으로 분류한 다음 긍정 진술문 중에서 가장 긍정하는 것을 차례로 골라서 바깥에서부터(+4) 안쪽으로 분류를 진행하여 중립부분에서 정리하였다.

이어 P표본에 대한 조사가 완료된 후 수집된 자료를 점수화하기 위하여 Q표본 분포도에서 가장 부정적인 경우 (-4)를 1점으로 시작하여 가장 긍정적인 경우 9점(+4)을 부여하여 점수화 하도록 한다[표 1]. 이 부여된 점수를 진술문 번호순으로 코딩하고, 이러한 자료를 PC용 QUANL 프로그램으로 처리하여 그 결과를 얻는다.

[표 2] Q진술문의 유형별 표준점수
[Table 2] Z-scores by types of Q-statements

Q진술문(Q-Statements)	유형별 표준점수			
	I (N=26)	II (N=11)	III (N=1)	IV (N=2)
01. 소방공무원은 재난 현장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	1.6	1.4	0.0	-1.4
02. 소방공무원은 위급상황을 잘 확보해야 한다.	1.0	1.1	0.0	0.1

03. 소방공무원은 사고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0.1	-0.8	0.0	-0.7
04. 소방공무원은 피해현장 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0.2	0.0	0.5	0.0
05. 소방공무원은 따뜻한 인간미가 넘쳐야 한다.	1.1	-0.2	-0.5	0.7
06. 소방공무원은 냉철해야 한다.	0.8	1.1	0.5	-1.2
07. 소방공무원은 인명구조가 우선이다.	1.8	0.7	-0.5	-0.4
08. 소방공무원은 지속적인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1.5	1.6	1.9	-0.7
09. 소방공무원은 재난사고에 관한 지식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1.5	1.7	-0.5	-0.6
10. 소방공무원은 대인관계가 좋아야 한다.	0.7	-0.1	-0.5	-0.4
11. 소방공무원은 카리스마가 있어야 한다.	0.1	-0.8	1.4	0.0
12. 소방공무원은 심지가 굳어야 한다.	0.7	-0.7	0.5	0.3
13. 소방공무원은 공과 사를 확실히 구분해야 한다.	0.8	0.8	-0.5	-0.4
14. 소방공무원은 지적이어야 한다.	0.0	-1.3	-0.9	-0.1
15. 소방공무원은 공명정대해 보인다.	0.7	-1.9	-0.9	1.8
16. 소방공무원은 당당해야 한다.	0.5	-0.1	0.5	1.0
17. 소방공무원은 무슨 일이든 빠르게 처리할 것 같다.	-0.0	-0.7	0.9	0.8
18. 소방공무원은 비리가 없어 보인다.	0.1	-1.7	0.9	1.8
19. 소방공무원은 책임감이 있다.	0.7	0.7	-0.9	-0.2
20. 소방공무원은 깔끔해 보인다.	-0.1	-2.1	0.5	1.2
21. 소방공무원은 모범생 같지는 않다.	-0.5	0.3	0.0	-1.0
22. 소방공무원은 위기대처 능력이 뛰어나다.	0.6	0.5	-0.9	2.1
23. 소방공무원은 현실적이다.	-0.3	0.8	0.0	0.8
24. 소방공무원은 결과 속이 다를 것이다.	-1.5	-1.0	1.4	-2.1
25. 소방공무원은 인간미가 없어 보인다.	-1.2	-0.9	1.4	0.3
26. 소방공무원은 고리타분하다.	-1.0	-0.2	0.0	-2.0
27. 소방공무원은 믿음직스럽다.	0.3	0.5	-1.4	0.4
28. 소방공무원은 나이 들어 보인다.	-1.0	1.8	1.9	-1.1
29. 소방공무원은 비열해 보인다.	-1.8	-0.7	-1.9	-0.2
30. 소방공무원은 날카로울 것 같다.	-0.9	-0.7	0.9	0.2
31. 소방공무원은 비리가 은근히 많을 것 같다.	-1.7	0.1	0.0	-1.4
32. 소방공무원은 가정에 소홀할 것이다.	-1.2	-0.3	-1.9	0.8
33. 소방공무원은 사생활 관리가 철저하다.	-0.8	0.2	-1.4	0.2
34. 소방공무원은 고집이 셀 것 같다.	-1.2	1.1	-1.4	0.4
35. 소방공무원은 우유부단하다.	-1.2	-0.2	0.9	1.0

다음으로, 표 3은 각 유형에 속한 사람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인자가중치(factor weight)를 제시한 것이다. 각각의 유형 내에서 인자가중치(factor weight)가 높은 사람일수록 그가 속한 유형에 있어서 그 유형을 대표할 수 있는 전형적인 사람임을 나타내고 있다.

[표 3] 인구학적 특성 및 유형별 인자가중치
[Table 3]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factor weight by types

유형	ID	연령	직업	인자가중치
TYPE I (N=26)	1	20대	소방교	2.7194
	2	20대	소방사	2.4344
	4	30대	소방사	4.1827
	5	30대	소방사	2.7849
	6	30대	소방사	2.5255
	9	20대	소방사	2.3381
	10	30대	소방교	1.5791
	11	30대	소방사	0.8590
	12	30대	소방사	0.4871
	17	30대	소방사	1.2411
	18	30대	소방사	1.0774
	19	30대	소방사	0.8808
	20	30대	소방교	1.8681
	21	30대	소방사	0.8308
	24	30대	소방교	2.3898
	25	20대	소방사	1.2584
	26	20대	소방사	2.9683
	28	30대	소방교	1.2440
	29	20대	소방사	2.9604
	30	40대	소방장	0.6542
	32	30대	소방교	2.3024
	34	20대	소방사	0.8296
	35	20대	소방사	1.4357
	37	30대	소방교	1.0439
	38	20대	소방사	0.9585
	39	20대	소방사	1.9012
TYPE II (N=11)	7	30대	소방교	0.8873
	8	30대	소방교	0.6712
	13	30대	소방사	0.6778
	15	30대	소방사	0.8365
	16	30대	소방사	0.3955
	22	30대	소방교	0.4344
	23	30대	소방사	0.3865
	27	30대	소방사	0.3523
	31	30대	소방사	0.9493
	33	20대	소방사	0.4893
	40	30대	소방교	0.3110
TYPE III (N=1)	36	30대	소방사	0.5784
TYPE IV (N=2)	3	30대	소방사	0.4048
	14	30대	소방교	0.2263

위 표는 선정된 40명의 응답자들이 35개 진술문에 응답한 4가지 유형별 표준점수를 보여 주고 있으며, 제 1 유형과 2유형이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분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겠다.

3. 연구결과

3.1 주요 결과

국내 소방공무원의 이미지에 관한 주관성 유형을 알아보기 위해서, Q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한 결과 총 4개의 유형이 나타났다.

QUANL 프로그램을 실시해 본 결과, 전체변량의 약 50(0.4972)%를 설명하고 있는 4개의 유형에는 각각 26명, 11명, 1명, 2명이 속하였는데, 여기서 인원수의 의미는 없다. 또한 인자가중치가 1.0이상인 사람이 각각 19명, 0명, 0명, 0명이 속해 있어 제 1유형이 가장 큰 (설명력이 높은) 인자임을 알 수 있다.

아래의 표 4에서 보듯이, 각 유형의 변량 크기를 나타내는 대표적 아이겐 값(eigen value)은 각각 0.3736, 0.4488, 0.4972 등으로 나타났다. 이 프로그램은 주인자 분석(principal components factor matrix)을 행하고, 회전은 직각회전(varimax rotation)을 시행하였다.

[표 4] 대표적 아이겐 값과 변량의 백분율

[Table 4] Main eigen value and percent of variance

	제 1유형	제 2유형	제 3유형
아이겐 값	14.9435	3.0074	1.9381
전체변량 백분율	0.3736	0.0752	0.0485
누적 빈도	0.3736	0.4488	0.4972

[표 5] 전체 유형간의 상관관계

[Table 5] Correlation between total types

	제 1유형	제 2유형	제 3유형	제 4유형
제 1유형	1.000	-	-	-
제 2유형	0.324	1.000	-	-
제 3유형	-0.016	-0.054	1.000	-
제 4유형	0.091	-0.390	-0.200	1.000

위 표 5는 전체 유형간의 상관계수를 나타내 주는데, 이는 각 유형간의 관계정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제 1유형과 제 2유형간의 상관계수는 0.324(가장 정적관계), 제 2유형과 제 4유형간의 상관계수는 -0.390(가장 부적 관계) 등이었다. 위 표에서 보듯이, 네 개의 유형들은 상당히 독립적이며, 전체적으로 긍정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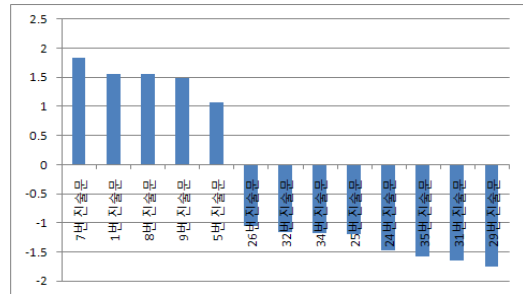
3.2 유형별 Q분석

3.2.1 제1유형(N=26): 직업형(Occupational Type)

[표 6] 표준점수 ±1.00이상을 보인 진술문

[Table 6] Statements of Z-Score ±1.00

	Q 진술 문	표준 점수
긍정	7. 소방공무원은 인명구조가 우선이다.	1.84
	1. 소방공무원은 재난 현장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	1.56
	8. 소방공무원은 지속적인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1.55
	9. 소방공무원은 재난사고에 관한 지식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1.48
	5. 소방공무원은 따뜻한 인간미가 넘쳐야 한다.	1.07
부정	26. 소방공무원은 고리타분하다.	-1.05
	32. 소방공무원은 가정에 소홀할 것이다.	-1.16
	34. 소방공무원은 고집이 셀 것 같다.	-1.18
	25. 소방공무원은 인간미가 없어 보인다.	-1.20
	24. 소방공무원은 겉과 속이 다를 것이다.	-1.48
	35. 소방공무원은 우유부단하다.	-1.58
	31. 소방공무원은 비리가 은근히 많을 것 같다.	-1.65
	29. 소방공무원은 비열해 보인다.	-1.76



위의 표 6을 보면, 제 1유형에 속한 26명은 위 표 4에서 분석된 바와 같이 인자가중치가 1을 넘는 응답자의 수가 19명으로, 7번[소방공무원은 인명구조가 우선이다 (Z-score=1.84).] Q진술문에 가장 긍정적 일치를 보이고 있고, 29번[소방공무원은 비열해 보인다(Z-score=-1.76)] Q진술문에 가장 부정적 일치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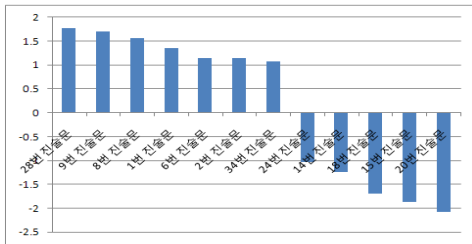
3.2.2 제2유형(N=11): 경험형(Experience Type)

표 7을 보면, 제 2유형에 속한 11명은 위 표 4에서 분석된 바와 같이 인자가중치가 1을 넘는 응답자의 수가 0명으로, 28번[소방공무원은 나이 들어 보인다 (Z-score=1.78).] Q진술문에 가장 긍정적 일치를 보이고 있고, 20번[소방공무원은 깔끔해 보인다(Z-score=-2.09)] Q진술문에 가장 부정적 일치를 보였다.

[표 7] 표준점수 ±1.00이상을 보인 진술문

[Table 7] Statements of Z-Score ±1.00

Q 진술문		표준점수
긍정	28. 소방공무원은 나이 들어 보인다.	1.78
	9. 소방공무원은 재난사고에 관한 지식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1.70
	8. 소방공무원은 지속적인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1.56
	1. 소방공무원은 재난 현장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	1.36
	6. 소방공무원은 냉철해야 한다.	1.15
	2. 소방공무원은 위급상황을 잘 확보해야 한다.	1.14
	34. 소방공무원은 고집이 셀 것 같다.	1.08
부정	24. 소방공무원은 결과 속이 다를 것이다.	-1.04
	14. 소방공무원은 지직이어야 한다.	-1.25
	18. 소방공무원은 비리가 없어 보인다.	-1.70
	15. 소방공무원은 공명정대해 보인다.	-1.87
	20. 소방공무원은 깔깔해 보인다.	-2.09



3.2.3 제3유형(N=1): 인간형(Human Type)

[표 8] 표준점수 ±1.00이상을 보인 진술문

[Table 8] Statements of Z-Score ±1.00

Q 진술문		표준점수
긍정	8. 소방공무원은 지속적인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1.87
	28. 소방공무원은 나이 들어 보인다.	1.87
	11. 소방공무원은 카리스마가 있어야 한다.	1.40
	24. 소방공무원은 결과 속이 다를 것이다.	1.40
	25. 소방공무원은 인간미가 없어 보인다.	1.40
부정	33. 소방공무원은 사생활 관리가 철저하다.	-1.40
	34. 소방공무원은 고집이 셀 것 같다.	-1.40
	27. 소방공무원은 믿음직스럽다.	-1.40
	32. 소방공무원은 가정에 소홀할 것이다.	-1.87
	29. 소방공무원은 비열해 보인다.	-1.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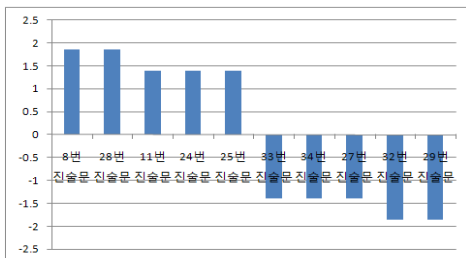


표 8을 보면, 제 3유형에 속한 1명은 위 표 4에서 분석된 바와 같이 인자가중치가 1을 넘는 응답자의 수가 0명으로, 8번[소방공무원은 지속적인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Z-score=1.87).] Q진술문에 가장 긍정적 일치를 보이고 있고, 29번[소방공무원은 비열해 보인다(Z-score=-1.87)] Q진술문에 가장 부정적 일치를 보였다.

3.2.4 제4유형(N=2): 정의형(Justice Type)

[표 9] 표준점수 ±1.00이상을 보인 진술문

[Table 9] Statements of Z-Score ±1.00

Q 진술문		표준점수
긍정	22. 소방공무원은 위기대처 능력이 뛰어나다.	2.05
	15. 소방공무원은 공명정대해 보인다.	1.79
	18. 소방공무원은 비리가 없어 보인다.	1.79
	20. 소방공무원은 깔깔해 보인다.	1.22
	35. 소방공무원은 우유부단하다.	1.05
	16. 소방공무원은 당당해야 한다.	1.00
부정	28. 소방공무원은 나이 들어 보인다.	-1.13
	6. 소방공무원은 냉철해야 한다.	-1.22
	31. 소방공무원은 비리가 은근히 많을 것 같다.	-1.39
	1. 소방공무원은 재난 현장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	-1.44
	26. 소방공무원은 고리타분하다.	-2.01
	24. 소방공무원은 결과 속이 다를 것이다.	-2.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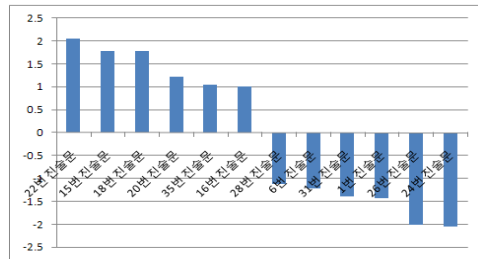


표 9를 보면, 제 4유형에 속한 2명은 위 표 4에서 분석된 바와 같이 인자가중치가 1을 넘는 응답자의 수가 0명으로, 22번[소방공무원은 위기대처 능력이 뛰어나다(Z-score=2.05).] Q진술문에 가장 긍정적 일치를 보이고 있고, 24번[소방공무원은 결과 속이 다를 것이다(Z-score=-2.05)] Q진술문에 가장 부정적 일치를 보였다.

3.3 일치하는 항목별분석

[표 10] 일치하는 항목과 평균 표준점수

[Table 10] Consensus item and Average Z-Score

Item Description	Average Z-Score
4. 소방공무원은 피해현장 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0.19
3. 소방공무원은 사고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0.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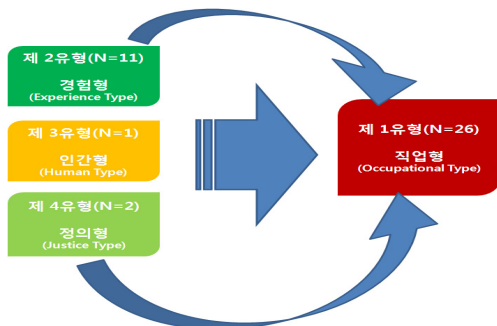
(*CRITERION = ±1.000)

이 연구에서 도출된 4개의 유형{제 1유형(N=26) : 직업형(Occupational Type), 제 2유형(N=11) : 경험형(Experience Type), 제 3유형(N=1) : 인간형(Human Type), 제 4유형(N=2) : 정의형(Justice Type)}이 비슷하게 동의한 Q진술문은 총 2개 항목으로 긍정적 항목 1개, 부정적 항목 1개 등으로 나타났다. 위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응답자들은 4번(긍정적 일치)과 3번(부정적 일치)의 진술문에 대체적으로 의견 동의를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고찰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국내 소방공무원의 이미지에 관하여 소방공무원들의 주관적 성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Q방법론을 이용하였다. 이 논문에서 제기한 연구문제는 크게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국내 소방공무원의 이미지에 대한 소방공무원들의 의견은 어떻게 유형화되는가? 두 번째는 국내 소방공무원의 이미지에 대한 소방공무원들의 심리적 유형들은 상호간 동질적인 특성과 함의는 무엇인가? 하는 점이 그것이다.

이러한 연구문제에 기초하여 유형분석을 한 결과 총 4가지의 유형, 제 1유형(N=26) : 직업형(Occupational Type), 제 2유형(N=11) : 경험형(Experience Type), 제 3유형(N=1) : 인간형(Human Type), 제 4유형(N=2) : 정의형(Justice Type)으로서, 각 유형별로 차별적이었다.



[그림 2] 유형분석을 통한 소방공무원의 이미지 유형 특성
[Fig. 2] Image typology characteristics of fire fighter through type-analysis

이와 같은 네 가지 유형별 결과를 분석한 결과, 그림 2에서와 같이 대부분의 응답자들(제 1유형에 의견의 일치를 보인 사람들)은 과거에 비해 소방공무원들의 이미지에 대해서 생소한 개념은 아니었으나, 지금까지와 다른 측면보다는 ‘인식의 변화’ 측면에서 의미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국내 소방공무원들의 이미지 유형은 좀 더 차별적인 이미지 인식에 중점을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수용 효과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본 논문에서도 도출된 4가지 유형들은 소비자들이 향후 소방공무원들의 이미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주관적인 인식이다. 또한 현장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 자신들은 ‘경험, 인간, 정의’적인 측면의 소방공무원 보다는 ‘직업적’ 성실성에 좀 더 의미를 두어야 한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였다. 따라서,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석된 모든 유형들은 제 4유형을 중심으로 서로 맞물려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소방공무원들의 이미지 유형에 대하여 소방공무원들의 인식사례를 선택하여 다양한 사례와의 비교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다양한 연구참여자의 참여경험을 연구해 나가기 위한 사전 단계로서 보다 심층적이고 특수한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세밀한 Q방법론의 질문항목과 분석방법을 개발하여 응답자들의 다각화와 객관화 분석을 점진적으로 시도하고자 한다.

후속 연구를 위해 무엇보다 고려해야 할 문제는 지금까지 소방공무원들의 일반적(사회적, 심리적) 특성이나 라이프스타일 유형화 등을 중심의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공익적 효율성과 함께 다각적인 인식과 평가에 따른 타겟별 대중의 유형화 작업을 보완하여 개선된 연구작업이 제시되어야 하며, 다양한 이용자들의 객관적 인식 특성과 행태를 연결하여 분석하는 것이 요청된다.

References

- [1] <http://kordic.nate.com/dicsearch/view.html?i=21850700>.
- [2] <http://ko.wikipedia.org/wiki/%EC%86%8C%EB%B0%A9%EA%B4%80>
- [3] Jong-suk, Bak, Study on developing plan and fact-finding analysis of fire-administration in nation. M.A. of dongguk-univ.. p.5. 1997.
- [4] Bang-sik, Kang, Job-disease and health administration of fire-public servant, M. A. Hoseo-univ.. 2005.
- [5] Ji-young, Lee, feeling-function, active-dealing-form, social-support of fire-public servant affecting on PTSD symptoms,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3-2. 2008.
- [6] Jong-myung, Kim, Promotion plan body-safety-reality

and physical strength of fire-public servant, 2005.

[7] Jong-suk, Kim, Study on Job-satisfaction degree of fire-public servant, M. A. Inje-univ., 1998.

[8] Kwan-woon, Kim, Safety of disaster field in fire-public servant, M. A. KNOU. 2003.

[9] Yong-woo, Kim, Analysis on settlement plan of field-command-system and safety-accident outbreak of fire-public servant, 1998.

[10] Dryzek, J. S., *Discursive Democracy: Politics, Policy, and Political Science*,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11] Heung-gwu, Kim, Understanding and application of Q-methodology, Communication-culture institute of Seogang Univ., p. 45, 1990.

[12] Heung-gwu, Kim, Understanding of Q-methodology for subjectivity study, Nursing study 6(1), pp. 1-11, 1992.

[13] Stephenson, W., *The Study of Behavior: Q Technique and Its Methodolog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4.

[14] Brown, S., During, D. & Selden, S., *Q Methodology*. In G. Miller and M. Whicker, eds., *Handbook of Research Methods in Public Administration*. New York: Marcel Dekker. 1999.

[15] Brown, S., *Political Subjectivity: Applications of Q Methodolog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0.

[16] Dong-hun, Sunwoo, consumer behavior study by Q-methodology, Advertising study, summer(11). KOBACO, p. 7, 1991.

이 제 영(Jei-Young Lee)

[정회원]



- 1997년 8월 : 한국외대 신문방송학과 정치학석사
- 2005년 2월 : 한국외대 신문방송학과 정치학박사
- 2008년 3월 ~ 현재 : 관동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교수

<관심분야>
광고홍보, 미디어콘텐츠

김 지 희(Jee-Hee Kim)

[정회원]



- 1987년 2월 : 고려대학교 의학과 의학사
- 1993년 2월 : 고려대학교 의학박사
- 2006년 3월 ~ 현재 : 강원대학교 응급구조학과 교수

<관심분야>
의·생명공학

김 동 옥(Dong-OK Kim)

[정회원]



- 2009년 2월 : 충남대학교 의학석사
- 2011년 11월 : 충남대학교 의학박사 재학 중(응급의학전공)
- 2011년 3월 ~ 현재 : 우송대학교 응급구조학과 교수

<관심분야>
의·생명공학

현 헤 진(Hye-Jin Hyun)

[정회원]



- 1991년 2월 : 서울대학교 보건학 석사
- 1998년 2월 : 서울대학교 간호학 박사
- 1999년 3월 ~ 현재 : 강원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의·생명공학

변 도 화(Do-Hwa Byeon)

[정회원]



- 2011년 11월 : 강원대학교 박사과정 재학 중(간호학 전공)
- 2010년 3월 ~ 현재 : 강원대학교 응급구조학과 강사

<관심분야>
의, 생명공학

노 상 균(Sang-Gyun Rho)

[정회원]



- 2005년 2월 : 연세대학교 보건학 석사
- 2009년 8월 : 원광대학교 의학박사
- 2011년 3월 ~ 현재 : 선문대학교 응급구조학과 교수

<관심분야>
의, 생명공학

이 정 현(Jung-Hyun Lee)

[정회원]



- 2007년 2월 : 경기대학교 경영학 석사
- 2011년 8월 : 경기대학교 경영학 박사
- 2009년 11월 ~ 현재 : 호원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 교수

<관심분야>
서비스 경영, 항공서비스